대학 및 군교육에 있어서의

# 승 공 교 육 의 개 선 책

1969. 12

국 토 통 일 원

# 차 례


1. 서론 ..... 1

가. 공산주의의 도전과 그 성격 ..... 1

나. 우리의 투쟁의 성격 ..... 3

다. 사상적 도전과 그 대비론 ..... 6

2. 승공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 11

가. 대학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중요성 ..... 11

나. 군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중요성 ..... 24

다. 승공교육의 목표와 본질 ..... 26

3. 승공교육의 개황 ..... 30

가. 대학에 있어서의 실정 ..... 30

(1) 문교부의 방제 ..... 30

(2) 대학의 실정 ..... 30

(3) 당로자의 자기평가 ..... 34

(4) 앞으로의 계획 ..... 35

나. 군교육에 있어서의 실정 ..... 36

(1) 국방대학원 ..... 37

(2) 육군사관학교 ..... 37

(3) 공군사관학교 ..... 40

4. 평가 ..... 43

가. 대학 ..... 43

(1) 승공교육의 핵과 요건 ····· 43
(2) 승공교육의 부재 ····· 51
나. 군교육 ····· 57
다. 승공교육 부재의 원인 ····· 58
(1) 근인 ····· 60
(2) 원인 ····· 61
5. 승공교육의 개선책 ····· 72
가. 문제의 재확인 2 소재와 성격 ····· 72
나. 해결의 가능성 ····· 74
다. 대책 ····· 77
(1) 현직 담당자 연수회 ····· 77
(2) 대학 강의요원의 양성 ····· 77
(3) 공산주의 이론연구기구의 설치 ····· 78
(4) 관계 행정책임자에 대한 교양 ····· 78
(5) 교재 편찬 ····· 79
(6) 연구에 대한 원조 ····· 80
(7) 보상제도의 창설 ····· 80
(8)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자유의 심중한 확대 ····· 80
라. 기대할 수 있는 파급 효과 ····· 81
(1) 승공통일의 주력부대 확보 ····· 81
(2) 고교 이하의 반공교육 강화 ····· 82
(3) 공무원 및 각종 단체 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개선 ····· 82

(4) 대 북괴 사상전의 선제공세 ····· 83
(5) 재일거류민단의 강화 ····· 83
(6) 미전향 간첩 및 사상범에 대한 선도 ····· 84
(7) 통일 후 재교육에 대한 준비 ····· 84
(8) 자유세계의 승공 역량 증진에의 기여 ····· 85

## 1. 서 론

### 가. 공산주의의 도전과 그 성격

「노동의 해방은 국지적 또는 일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라는 원칙 밑에서, 「어떠한 민족주의 결사에도 가입함을 금지」하는 엄격한 국제주의를 내걸고, 1847년에 「공산주의자동맹」이 결성·발족된 이래, 근세공산주의운동은, 지금도,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일반적 법칙성의 하나로,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이라는 주장을 대체로는 버리지 않고 있다.

이 국제공산주의는, 누구에게나 이미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같이, 「<브르좌지이>의 타도와 <프롤레타리아아트>지배의 성취」라고 「공산주의자 동맹」의 규약이 규정했고, 「코민테른강령」은, 「국제적인 <부르좌지이>국가의 타도」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 <레닌>에 의해서는, 「세계혁명의 승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일관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투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른 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한」 국제공산주의의 <투쟁>을, 좁게 1945년 8월 이후의 한국의 경우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북한에 있어서의 김일성 괴뢰집단의 조작극으로 비롯된 일련의 범죄행위들 — 민족주의노력의 말살, 공업시설의 소영반출, 이에 항의한 애국학생들의 학살, 인민에 대한 노동력 혹사와 생산수단 수탈을 기초로 한 기아의 강요

와 무력 남침준비의 강행, 정치적·경제적· 독재체제의 확립 등 끝이 없으며, 남한에 있어서는,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과 그 산하 100여개 적계조직들에 의해서 범행된 수많은 사건들, 찬탁과 민족분장의 결정적 격화, 학병동맹사건, 정판사화폐사건, 대구폭동사건에서 발단된 전국 각지의 폭동·반란·<테러>사건 전국 각 직장, 학교의 파업 소동; 국회<푸락치>사건 등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위와 같은 국제공산주의의 목적으로 부터, 이번에는, <스탈린>의 아는 바, <승리한 혁명의 본질적 임무>가 이끌려 나온다. 즉 「다른 여러 나라들의 혁명을 발전시키며 지지하는 것은 승리한 혁명의 본질적 임무이다. 그러므로, 승리한 나라의 혁명은, 자신을 자족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아트>가 승리하는 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원조로서 수단으로서 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 민족주의세력의 애국적 투쟁과, 정판사화폐사건을 제기로 한 미군정경찰의 치안조치, 특히 1949년 10월에 취해진, 남노당, 민주주의민족전선 산하 133개 적색단체에 대한 등록 취소로 말미암아 남한 공산세력의 혁명역량이 거의 분쇄되어 버린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북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우리에 대하여 취해 온 온갖 도전행위, 멀리 1948년 10월로 소급되는 무장공비의 남파, 1949년에 극심했던 38선 일대의 무력도발, 6.25무력남침, 휴전후에 있어서의 국내외에 걸친 정치·외교 및 사상적 각종 공세, 1.21사태 이후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간첩사건과 무장

공비사건 등등은 북괴가 국제공산주의에 의해서 부과된 이른바 <승리한 혁명의 본질적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취해 온, 광신적 및 맹목적인 의무 이행임을 알 수 있다. 「전국적 범위에서 반제, 반봉건적 민주혁명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을 당면 목적이라고 말하는 북괴 「노동당강령」이, 무엇 보다도 잘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

이리하여, 우리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첫째는, 작고 가깝게는 북괴로 부터 오는 것인 동시에, 크고 멀게는, 그것이 국제공산주의로 부터 오고 있다는 이중적 성격이다.

둘째는, 국제공산주의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포기되지 않는 한 그것은 기한 없이 계속될 장기적 도전이라는 성격이다.

세째는,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하는」 다원적 또는 전면적 도전이라는 성격이다.

나. 우리의 투쟁의 성격

「국제적인 <부르좌지이국가의 타도」 즉 전 세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를 이 지구 표면으로 부터 완전하고도 영원히 말살해 버리는 것 이것이 국제공산주의의 궁극적 투쟁 목표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이란 것은, 승패의 결과가 다만 <기록>되는 데 그치는 <게임> — 설욕전의

기회가 언제나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게임>인 것이 아니라, 승패는 곧 존망을 뜻하는, 먹느냐 먹히느냐의 참으로 처절을 극한 투쟁인 것이다. 정부수립 이래, 우리가 반공을 가리켜서 국시라고 까지 불러 말하며, 이 싸움에다가 나라와 겨레의 미래와 운명을 걸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투쟁은 어떤 성격의 것이어야 할 것인가.

방어무기는 공격무기에 의해서 제약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투쟁의 성격은 저들의 도전의 성격으로 부터 무관하게 형성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투쟁은,

첫째로, 이중적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우리에 대한 도전이 한편으로는 북괴로 부터 오고 있는 동시에, 그것은 또 국제공산주의로 부터도 오고 있는 이상, 이 도전에 대한 우리의 투쟁 또한 북괴에 대한 것인 동시에 국제공산주의에 대한 투쟁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또 그것은 우리들 자신을 위한 한국민 자신의 싸움인 동시에 전체 자유인민들을 위한 자유인민들 모두의 공동의 투쟁이 아니면 안된다는, 또 하나의 이중적 성격을 띠고 나타난다. 수 많은 자유세계의 젊은 이들이 낯선 한국전선에 피를 뿌렸고, 지금은 한국의 젊은 이들이 월남전선을 피로 지키고 있으며, 일본의 정경분리정책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겨레의 존망을 걸고 있는 한국민들로 하여금 항상 섭섭한 느낌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는 것도 모두, 이 투

쟁의 이중적 성격에 연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공산주의의 도전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투쟁은 장기적 계속적 투쟁이라는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전 세계 모든 <부르좌지이>국가를 남김 없이 타도하려고 드는 공산주의의 도전은 처음부터 저들 자신이 도발한 싸움인 동시에, 「공산주의자 동맹」이래 120여년에 걸친 근세공산주의운동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국제공산주의의 불변의 목표로서 추구되어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은 본질적으로 방어전인 것이며, 싸움의 도발자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들 자신인 것이다. 따라서, 지표로 부터 우리들 모두를 말살하려고 드는 도발을 공산주의자들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저들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방어전은, 필연적으로 장기적 계속적인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세째는, 다원적 또는 전면적 성격이다.

앞에서 보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국제공산주의는 국제적인 <부르좌지이>국가의 타도를 저들의 목표로 내걸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하며> 투쟁할 것을 오랜 전통과 신념으로써 다짐해 왔다.

따라서, 공산주의자 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이란 <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의 이익에 종속되는 것이고....그 기초는 공산주의의 수립과 그 완성을 위한 투쟁」인 것이며, 「어떠한 행위도 예컨대 살인이나 양친을 밀고하는 행위도 공산주의의 목적에 도움

이 되면 정당화된다」는 것이 저들의 <신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저들의 <모든 행위>는, 오직 하나 우리를 말살하려는 것이니, 이와 같은 도전에 대한 우리들 자신의 투쟁 또한 무장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하는 것> 즉 전면적·다원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 이상으로 당연한 사리라 할 것이다.

다. 사상적 도전과 그 대비론

국제공산주의로 부터 우리는 지금 기한 없는 전면적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 싸움은 우리가 <휴전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바로 이 <휴전>이란 형태로써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살기 위해서 자위하느냐> 아니면, <생존을 포기하느냐>의 두 길뿐이며, <레닌>의 말과 같이, 「중간의 <코오스>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강요되고 있는 투쟁에서 살아 남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전면적> 또는 <다원적> 투쟁이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제6대국회가 1967년 5월에 채택한 「통일백서」는 1966년 12월 6, 7 양일의 <국토통일연구기구에 관한 공청회>회의록 부분에서, 대체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우리는 북괴로부터 경제적·군사적·정치적 및 외교적 도전을 받고 있으므로 앞날에 승공통일을 달성하려면, 우리는 이들 각종

형태의 도전에 대하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컨대, <공청회>의 이와 같은 대비론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가치있는 논의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일은, 그것이 <필요>는 하나 <충분>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니 이 대비론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가장 근본적이고도 주요한 또 하나의 문제 즉 사상적 도전과 이에 대한 대비의 문제를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에 있어서, 해방을 마지하던 그 순간으로 부터, 더 엄격히 따지자면 <레닌>의 식민지, 약소민족 해방의 약속에 속아, <시베리아>의 한인들이 「한인사회당」을 결성한 1918년 이래, 우리는 끊임 없이, 공산주의의 끈질긴 사상적 도전을 받아 왔다.

가깝게 해방 이후의 시기에서 만 보더라도, 해방 직후 백수십개를 헤아리던 공산계조직들에 의해서 발간, 발표된 각종 공산주의서한·선언문·성명서·결의문 등을 비롯하여, 북괴의 평양방송, 북송 및 <모스크바>의 한국어 방송, 또 북괴에 의해서 밀송되는 <비라>·<판플렛>·신문·잡지·산문·호소문 등, 그리고 간첩들의 감언이설과 공갈, 협박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방법에 의해서 저들은 끊임없이 사상적 도전을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바, 공산주의자들의 소신에 의하면, 이 공산주의 사상은 저들의 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최대의 힘이며 최강의 무기라는 것이다.

「혁명적인민이 갖고 있는 정신적 원자폭탄은 물질적 원자폭탄

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며, 훨씬 더 유용한 무기이다.」(임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은, .....노동계급이 혁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론적 무기이다.」(북괴의 「정치경제학」)

「모든 나라의 공산당에 있어서, 최대의 힘의 원천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이다.」(윌리엄·포스터)

그러면, 공산주의자 들에 있어서, <최대의 힘의 원천>이며, <원자폭탄 보다도 훨씬 더 유용하고 위력적인> <혁명의 무기>로 되어 있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청회>가 언급 조차 하지않고 간과·무시해도 좋을 만큼 무력한 것일까.

그러나, 멀지도 않은 과거에 있어서 우리들 자신이 취한 일련의 태도는 이 물음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 되고 있다.

즉, 기록에 의하면, 휴전후 약 10년 동안에 북괴는 근 20차에 걸쳐서 평화통일·남북총선거를 제의해 왔고, 또 10여 차례에 걸쳐서 교수·학생·문화인·언론인·예술인·체육인·경제인·물자·서신 등의 남북교류를 제안해 왔다. 그런데, 저들의 이와 같은 각종 제의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겉으로 냉전을 꾸미면서 묵살·냉소·회피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안>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못>받아들인 것이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간에 저들과의 접촉은 사상적 선전의 직접적 기회가 될 것이므로 그것이 불안해서 피해온 것이다. 물론, 우리가 저들의 각종 제의를 회피해 온 이유는

그것 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그와 같은 제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수세에서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적의 사상적 도전에 대한 불안에 있다는 이 명명한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이 사실은 1964년 가을에 신금단부녀의 슬픈 상봉에 뒤이은 <남북가족면회소 설치안>논의에서 다시 한번 명백히 들어났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은 우리에게 있어서 <간과>·<무시>할 수 있는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용기로써 <직시>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강력>한 힘인 것이니 무엇 보다도 「반공법」의 존재 자체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자들의 경제적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경제건설이 저들의 군사적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방력이 적의 정치·외교적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치적·외교적 그 대응방법이라고 할 때 공산주의의 이 사상적 도전에 대한 대응책은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 다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적 역량 즉 사상의 힘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선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서 그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을 도리어 설득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버리고 우리를 따르도록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상의 힘 이와 같은 강력하고도 적극적인 사상과 이론을 창조하고 길러서, 우리들 자신의 정신을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다.

여기에도, 길은 물론 여러 갈래가 있을 것이며, 교육이 그

큰 갈래의 하나란 것 또한 다툴 여지도 없는 일이다.

본 연구는 이 교육 가운데에서, 일단대학과 이에 준하는 군교육 이상의 과정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을 개관하고, 그 개선책을 발견, 제시하는 것으로써 그 주목적을 삼고 있다.

## 2. 승공교육의 중요성과 목표

### 가. 대학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중요성

우리 나라의 대학교육은, 「교육법」 제5장 제5절 108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그 목적이 규정되고 있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크게는 인류사회 전체의 발전에 있어서 그리고 작게는 한 국가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이 대학교육의 성과 여하가 미치게 될 영향은 넓고 깊고 크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작금 현실에 있어서는, 비단 대학이 지니고 있는 이 일반적 목적 때문 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수한 또는 구체적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대학은 이 나라의 발전과 이 겨레의 앞날 운명에 대하여 한층 광대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1) 첫째는, 1960년 이래, 대학사회가 강대한 사회세력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3.15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로 부터 4.19의 의거를 거쳐서 4.26의 승리에 이르는 투쟁과정에서, 행동의 요령과 단결의 가치와 승리의 쾌감을 체험한 한국의 대학은, 현실참여에 대한 줄기찬 욕구와 아성 세대에 대한 싸늘한 불신과 그리고 일종의 영웅주의적 기분에 젖게 됨으로써, 마침내 강대한 사회세력

으로서 아마도 군대와 경찰을 제외한다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대한 현실적 세력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학이 조국의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앞날에 대하여 무엇을 구상하며, 그리고 이 구상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한국의 진로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커다란 힘으로서 작용하게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더구나 앞날의 통일 과정을 예상할 때, 이 힘의 중요성은 한층 커진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가 내걸고 있는 통일방안은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한 국토통일인데, 만일 이 방안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휴전선과 반공법은 철폐되고 군대와 경찰은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대학세력의 힘은 글자 그대로, 우리 나라 최강의 사회세력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강의 사회세력인 이 대학과 여기에 접속되는 사회의 젊은 지식층이 공산주의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결과는, 다만 <커다란> 영향을 입는데 그치지 않고, 어쩌면 <결정적> 영향을 입게 될른지도 모르는 것이다.

(2) 둘째는, 최근 몇해 사이에 대학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현저히 감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4년 8월에 대한교육연합회와 중앙교육연구소의 주최로, 「민주시민의 교육」이란 주제 밑에 충북 속리산 법주사에서 있었던 <세미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하여, 그것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의 비율은 100명 가운

데 30명 뿐이고, 40명은 명백히 부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명은 반신반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명백하게 지지하는 학생은 겨우 30%인데 대해서, 나머지 70%라는 절대다수의 학생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신반의 내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하여 반신반의 또는 부정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곧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나 동조를 뜻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공을 국시라고 까지 강조하는 근본이유가, 바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대학생들의 이와 같은 경향은 이 나라의 앞길에 적지 않은 암영을 던져 주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필자는, 1965년 8월호 「교육평론」에서 <반공교육의 재검토」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지적해 둔 일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반신반의 내지 부정적인 태도란 것은 곧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신념의 약화 또는 결여를 뜻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공산주의의 선전공세 앞에 위약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방비상태에 놓여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민주주의에 대하여 반신반의 내지 부정적인 이 70%란 수자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확답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불과 4년 전인 1960년 봄에는 이들 동일한 대학사회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독재를 타도하는 데에 총 궐기하여 목숨마저 바쳤던

사실을 상기할 때, 이 70%란 수자는 줄어들 가능성 보다도 커질 공산이 아마도 더 크다 할 것이며 따라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에 대한 위험성도 그 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세째는, 역시 최근 몇해 이래로, 공산주의에 대한 이 나라 대학생들의 태도에 경계심의 해타 내지 동조적 경향이 차츰 눈에 뜨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62년 11월에 대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공보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제1표> 공산주의에 대한 <이메지>

| | 계 | 세계평화 | 독 재 | 경제적평등 |
|---|---|---|---|---|
| 서 울 | 99.0<br>(100.0) | 9<br>(0.9) | 246<br>(24.8) | 52<br>(5.3) |
| 지 방 | 989<br>(100.0) | 9<br>(0.9) | 232<br>(23.5) | 73<br>(7.4) |

| 자 유 | 부 자 유 | 민 주 주 의 | 학 살 |
|---|---|---|---|
| 0 | 352 (35.6) | 3 (0.3) | 42 (4.2) |
| 1 (0.1) | 352 (35.6) | 2 (0.2) | 33 (3.3) |

| 침 략 | 숙 청 | 공 업 발 전 | 노동자의 낙원 |
|---|---|---|---|
| 34 (3.4) | 62 (6.3) | 12 (1.2) | 8 (0.8) |
| 38 (3.8) | 53 (5.4) | 21 (2.1) | 9 (0.9) |

| 무서운것 (공포) | 강제노동 | 인도주의 | 기 타 | 무 답 |
|---|---|---|---|---|
| 60 (6.1) | 86 (8.7) | 4 (0.4) | 12 (1.2) | 8 (0.8) |
| 47 (4.8) | 90 (9.1) | 3 (0.4) | 17 (1.7) | 9 (0.9) |

첫째로, 공산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메이지>에 있어서는, <부자유><독재> 등으로 공산주의를 나쁘게 보고 있는 것이 총 89.1%(지방은 85.5%)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나머지 10.9%(지방은 15.5%)의 학생가운데 대부분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를 좋게 보는 좌경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특히, 공산주의는 곧 경제적 평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5.3%(지방은 7.4%)의 학생과 <세계평화><민주주의><노동자의 낙원><인도주의> 등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2.4%(지방도 2.4%)를 합친 7.7%(지방은 9.8%)의 학생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지지 내지 동조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제2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냐?

| | 계 | 옳은 말이다 | 다소 틀린 말이다 | 전혀 틀린 말이다 | 모르겠다 | 무 답 |
|---|---|---|---|---|---|---|
| 서울 | 990 (100.0) | 41 (4.1) | 271 (27.4) | 472 (74.7) | 250 (25.2) | 6 (0.6) |
| 지방 | 980 (100.0) | 58 (5.8) | 287 (29.1) | 490 (49.6) | 142 (14.4) | 12 (1.2) |

둘째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냐?>라는 물음에 대하여, <전혀 틀린 말이다>가 47.7%(지방은 49.6%)로 가장 많으나, <옳은 말이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4.1%(지방은 5.8%)로, 이들 역시 공산주의에 대한 지지자 내지 동조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무려 25.2%(지방은 14.2%)나 된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제 3 표> 북한 : 학문의 자유보장

| | 계 | 있다고 본다 | 없다고 본다 | 모르겠다 | 무 답 |
|---|---|---|---|---|---|
| 서 울 | 990 (100.0) | 156 (15.7) | 550 (55.6) | 281 (28.4) | 3 (0.3) |
| 지 방 | 989 (100.0) | 202 (20.4) | 497 (50.3) | 286 (28.9) | 4 (0.4) |

세째로, 북한의 실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 <북한에는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가?>라고 물은데 대하여, <없다고 본다>가 55.6%(지방은 50.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모르겠다>가 28.4%(지방은 28.9%)나 되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으며, 더구나 <있다고 본다>가 15.7%(지방은 20.2%)에 까지 달하고 있어, 우리

의 눈을 의심케 한다.

생각컨대, <있다고 본다>는 학생의 전부가 반드시 의식적인 공산주의 변호분자라고는 아마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르겠다>라는 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있다고 본다>에 답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몰라서 라기 보다는,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있다고 본다>에 답을 적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역시, 공산주의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4 표> 「자본론」의 저자는?

| | 계 | 엥겔스 | 아담·스미스 | 케인즈 | 사뮤엘슨 | 레 닌 |
|---|---|---|---|---|---|---|
| 서 울 | 990 (100.0) | 56 (5.7) | 201 (20.3) | 84 (8.5) | 5 (0.5) | 12 (1.2) |
| 지 방 | 989 (100.0) | 58 (5.9) | 210 (21.2) | 97 (9.8) | 8 (0.8) | 15 (1.5) |

| | 로스토오 | 최호진 | 칼·맑스 | 모르겠다 | 무 답 |
|---|---|---|---|---|---|
| 서 울 | 2 (0.2) | 2 (0.2) | 348 (35.2) | 220 (22.2) | 60 (6.0) |
| 지 방 | 3 (0.3) | 1 (0.1) | 319 (32.3) | 203 (20.5) | 75 (7.6) |

네째로, 「자본론」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물은 데 대하여는, <칼·맑스>라고 바로 답한 학생은 불과 3분의 1(서울은 35.2%, 지방은 32.3%)이고, 약 3분의 2에 달하는 부분이 공산주의에 관한 가장 초보적 상식이라고 보아야 할 이 물음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답을 적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이 1962년 현재로 <국시>에 대하여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1962년 현재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약 4 내지 10%가 공산주의를 지지 내지 동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20 내지 30%는 전혀 모르고 있고, 전체의 약 2분의 1은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치 못한 지식밖에 갖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와 같은 수자들이 오늘에 와서는 어느 정도 달라가지 않았을까도 생각된다. 1962년 이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어 온 <반공·도덕>교육, 1968년의 1.21사태 이후에 있어서 북괴가 자행한 갖가지 만행, 그리고 같은 시기에 있어서, 한층 강화된 일반사회의 반공적 분위기, 무엇보다도 경제개발의 실적이 오르는 데 따른 자신과 예지의 증진 등등으로 미루어 보아 아마도 위의 수자는 오늘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면, 사태의 진행은 일방적으로 낙관해도 좋을까.

그러나 1968년 8월에 발생한 통일혁명당 사건은 전략당사건, 동독정치공작대사건, 김규남일당의 간첩사건 등 일련의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이 낙관적인 물음에 대하여 찬물을 끼언져 주고 있다.

당국에 의해서 발표된 바에 따라 알아 보건대, 이 사건의 주동분자 44명 가운데 31명이, 대학을 졸업 또는 수학한 지식분자로 되어 있다. 그중 17명이 국립서울대학교에서 배웠고 특히 문리대에서 수학한 자가 그 반수를 넘는 9명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상대가 7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밖에 동국대학이 5명, 고려대학 및 성균관대학이 각각 2명, 중앙대학과 건국대학이 각각 1명, 현역 육군중위(서울상대출)와 예비역 공군중위(서울문리대출)가 각각 1명 기타 등등으로 나타나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31명이란 수는 결코 많지도 않은 것이고, 따라서 크게 문제될 만한 일도 아니며, 더구나 서울문리대의 9명이란 수자는 단대 별로 볼 때는 가장 많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동 대학 교무당국의 말마따나 「동교에서 배출된 그 수백배 수천배에 달하는 사상 건전하고 능력 우수한 인재에 비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당장에 나타난 수자 만을 보고 가볍게 넘겨 버릴 수 만은 없는 몇가지 중대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첫째로, 이 나라에는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최고 사형까지를 과하는 「반공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누구못지 않게 이 사실을 잘 알고도 남을만한 지식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주동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들 처럼 공산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들을 일각으로 하는 빙산의 커다란 부분이 대학이란 해중에 잠겨져 있을수도 결코 없지 않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민주주의에 대한 대학생들의 신념의 감퇴, 공산주의에 대한 거의 완전한 무지의 상태에 있는 일부 대학생들의 존재, 그와 동시에 대학생의 4 내지 10%를 차지하는 공산주의 동조자가 있다는 사실 등등으로 보아 빙산이 존재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1966년 4월에 한국반공연맹이 주최한 한 좌담회에서 Y대의 H모교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의 사상 동향은 참으로 한심하다. 공산주의에 관해서 우리가 겪어 본대로 진실을 이야기해도, 전혀 믿으려 들지를 않으며 어떤 학생은 「보았느냐」고 대들고 심지어는 반공 = 반통일 = 반민족 즉, 대한민국정부는 통일에 대한 성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반공의 목적은 통일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니 이 반공이야 말로 반민족적인 것이 아니냐고 힐문해 온다. 이렇게 되면, 나도 공산주의사회를 가보지 않은 이상, 더 할 말이 없다.」

또, 최근의 대학생들의 사상 동향에 관해서 K대학교 모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근래 대학생들은 반공적 강의를 <어용시>한다. 그러기 때문에 뜻이 있는 교수도 학생들에게 어용시 당하면서 까지 굳이

반공적 발언을 할 필요야 없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만 두게 된다。」

또 동교모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은 교수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적 발언을 하면, 「반공은 꼭 해야 합니까?」하고 물어 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공으로 세운 이 나라의 앞날에 불길한 예감이 든다。」

또, S대학교 C모교수는 동교에 있어서의 개헌안 반대운동을 비롯한 학생들의 항의운동의 배후에는 대개 공산주의 학생이 있어서 소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으며, 동교 Y모교수 역시 이와 같은 견해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세째는, 이 통일혁명당사건과 같은 성질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1949년 10월에 공산계 세력이 불법화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우리가 반공의 만능약으로 믿어 온 6.25의 체험으로 부터 약 1세대의 세월이 흐른 시기에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6.25를 모르는 새 세대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거족적인 이 체험이 그 시효에 가까와지고 있다는 것, 또 따라서 이 새 세대에 대해서는 체험에 대신할 다른 무엇인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혁명당사건은 반공을 국시라고 까지 강조해 말하고 있는 이나라 대학생들의 사상동향에, 비록 아직은 대단한 수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조직이 싹틀 수 있을 만큼, 말하자면 일종의 분위기 같은 것이 양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반공 한국의 앞날에 일대 경종을 울려 주고 있다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학사회의 사상적 동향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은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보다도 앞날의 통일과정에 대해서 미치게 될 작용과 영향을 생각함으로써 더욱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늘에는 <반공법>과 휴전선이 반공전선을 목숨으로 지키는 60만의 충용한 국군 및 <유엔>군이 있지만 통일의 과업이 만일 남북한 자유총선거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은 철폐되거나 중립의 자리에 서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때에는 반공이 국시될 수도 없고 용공이 범죄일 수도 없을 것이니 대학사회에 깔려 있는 오늘의 <분위기>가 강력한 현실적 세력에로 전화될 가능성은 거의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사회에서 지금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상적 경향 또는 분위기는 앞날에 있어서 감소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내다 보아야 할 것인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초·중·고교에 있어서의 반공교육의 실시, 1.21사태 이후의 북괴의 만행, 경제건설의 진전, 그리고 일반사회의 반공열의 앙양등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 생각한다면 어쩌면 낙관할 수 있을 것 처럼 내다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정세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동독정치공작대사건, 김규남일당의 간첩사건, 전략당사건, 동일혁명당사건 등이 최근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1) 공산주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새 세대의 성장, (2) 기성세대에 대한 이들의 불신 풍조, (3) 현실참여에 대한 열망, (4) 공산주의의 부분적 성공 (예컨대, <스푸트니크>의 선구 소련의 세계제2위 공업국에의 진출, 중공의 핵보유, 북괴의 군사력 증강 등등 그리고 앞날에도 있을 수 있는 어떤 부분적 성공들) (5) 사상선전의 비약적 강화(북괴는, 1968년 이래, 대남 사상선전을 3배로 강화하고 있다.)등 일련의 사실로 미루어 생각할 때는 어쩌면 낙관할 수 없을 것처럼 내다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낙관할 수 있는 요소도 있는 동시에 한 편에는 경계해야 할 비관적 요소도 역시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또 하나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비관적 요소들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 반대의 요소들을 최대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들 자신의 노력 넓게는 정치 좁게는 승공교육에 있어서의 노력의 성패가 우리의 앞날 운명을 밝게도 어둡게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나. 군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중요성

군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 그 가운데에서도 대학과정에 준하는 군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승공교육이 중요한 첫째 이유는, 이들 역시, 앞

에서 본 대학생들과 많은 점에 있어서 공통된 상황 하에서 자라난 같은 세대라는 사실이다. 이들의 사상 동향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당장에 없으니 무어라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들의 사상 동향이나 기타 문제가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서, 전혀 또는 크게 다르다고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승공교육이 중요한 둘째 이유는 군대라는 사회의 그 특수성에서 온다. 즉, 군대는 명령과 복종으로써 지탱되는 종적 조직사회로서 지휘관의 능·무능과 함께 그 인격 또는 정신상태의 여하는 그 부대의 군기와 사기 나아가서는 전투능력에 대해서 까지도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따라서, 군의 지휘관이 승공의 투지와 신념에 차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문제는 곧 바로 부대원의 사기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1949년에 표소령 일당에 의해서 범행된 부대 집단월북사건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휘관 한 사람의 사상불온으로 말미암아 군이 입게 되는 유형 무형의 손실은 어떤 가열한 전투의 그것 보다도 도리어 더 막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승공교육의 중요성은 전술 훈련이나 장비현대화가 갖고 있는 의의에 비해서 결코 못하지 않으며, 보기에 따라서는 도리어 한층 더 선차적·기본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니 지금 R.O.T.C를 합쳐서 매년 배출되고 있는 약 5,000명에 가까운 이들 군간부에 대한 승공교육의 중요성은 앞

날의 통일과업을 내다보며 생각할 때 참으로 크고도 절실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승공교육의 목표와 본질

서론에서 이미 론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전은 국외의 도전이자 또 국제공산주의의 도전이라는 이중적 성격과 장기 계속적 도전이란 성격과 그리고 다원적 또는 전면적 도전이란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으며 이 도전의 목적은 지구의 표면으로 부터 우리들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것으로서, 이 도전은 저들이 도발함으로써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전에 맞서고 있는 우리의 투쟁 역시 그 성격이 이중적 장기 계속적 다원적 또는 전면적인 것이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전쟁상행위도 제국주의적 침략도 아닌 정당방위 — 긴박한 위험으로 부터 스스로의 생존을 지키려는 정당방위인 것이며, 우리의 반공 교육이란 것은 이와 같은 전면적 투쟁의 일익을 담당하는 바로 <투쟁>인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도 서론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반공 교육이 공산주의의 다원적 도전에 대응하는 우리의 다원적 투쟁의 일익이란 이 사실로 부터 우리의 반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바 목표가 극히 선명하게 이끌려 나오게 된다. 무엇이냐 하면, 공산주의를 다만 알고 반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 바로 이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반공교육은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다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저들의 허위선전에 속아서 거기에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또는 반대·거부·배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그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접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토론 설득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버리고 우리를 따르도록 만들수도 있는 <힘>을 길러 갖도록 하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곧 투쟁인 바 패배가 바로 멸망을 뜻하는 이 투쟁에서는 지지 않으려면 이기는 길 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언제까지나 휴전선을 사이에 둔 <공산주의>와의 싸움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결국, 휴전선을 트고서 하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으로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주의자 들과의 사상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 반공교육의 목표로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우리 나라의 대학과 이에 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에 있어서 더욱 절실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학은 교육과정 전체로서 볼 때는 그 완성의 단계이며, 그 목적으로 볼 때는,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걸고 있는> 「국가 (즉 대한민국)의.....지도적 인격을 도치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학수준에 있어서의 반공교육은 엄밀한 의

미에서 말하자면 <반공>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승공> 교육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면, <반공>교육과 <승공>교육은 교육의 방법론의 면에서 볼때 어떻게 다른가. 앞에서 본 바와같이 <반공>교육은 공산주의란 것은 지지하거나 기대할 만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쁜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줌으로써 피교육자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 반대·부정·배척하도록 만드는 교육인바 이와 같이 다만 공산주의를 <반대>·<부정>·<배척>하도록 만드는 데에는 우리가 저들보다 꼭 <더 나아야>할 필요는 없고,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란 사실만 잘 가르쳐주면 그것으로써 족하다.

그러나, <승공>교육은 이와는 달라서, 공산주의 더 구체적으로는 공산주의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토론에서 상대를 설득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버리고 우리를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힘을 가르쳐 길러 주는 교육으로서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잘 가르치는 것 만으로써는 충분하지 못하고 반드시 상대 보다 내가 <더 나아야> 즉, 공산주의 보다 더 강력한 <대안>을 배워 갖도록 해야만 된다. 왜냐하면, 「대치할 수 있는것 만이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 마디로 말해서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반공>교육이 아니라 <승공>교육으로서 승공교육은 대안이 있는 교육에 의하여 공산주의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길러 주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좀 더 현실적·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극적으로는 「반공법」

이 없이도 아무런 불안없게 되기를 기하며 적극적으로는 오늘 승공교육을 받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앞날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유능한 승공통일의 주력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 3. 승공교육의 개황

가. 대학에 있어서의 실정

(1) 문교부의 방침

우리 나라의 대학 교육은 교육행정의 면에서는 문교부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 내용의 면에 있어서는 대학 자치의 원칙 밑에 각 대학에 맡겨지고 있다.

그러므로, 승공교육의 문제에 있어서도 문교부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희망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문교부의 반공 담당 장학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학 자치의 원칙이 있으니까, 승공교육을 꼭 하라든가 또는 어떤 내용 어떤 방법으로 하라든가 하고 지시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일이겠지만, 또 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의 문교부로서는 전혀 되어있지 않다. 다만 우리로서는 각 대학이 그 실정에 따라서 가능한 승공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바라고 있을 뿐이다.」

(2) 대학의 실정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에 대응하는 교육이 어느 대학에서 어떤 방법에 의하여 어느 정도로 실시되고 있는지 이것을 전국적 규모에서 상세하게 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대학에 대한 감독기관인 문교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아서 다소 간에 참고

가 될 수 있는 자료들 여기에 기대한다는 것은 결국 허사란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얻을 수 있는 자료의 한도 안에서 문제의 소재 문제의 성격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인 바,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뒤에서 보게 되는 바와같이, 이 문제가 갖고 있는 근본성격으로 말미암아서 자료의 다과란 것이 크게는 문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다행이라 할 것이다.

극히 개략적으로 말해서 지금 우리 나라의 대학 가운데 일부에서는 갖가지 반공<행사>로 부터 공산주의 비판에 이르는 잡다한 방법에 의하여 이른바 <반공교육>이란 것이 실시되고 있다. 크게 보아 5.16이후에 시작된 이 교육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쓰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공학생의 날」기념행사

반공논문 현상모집

반공웅변대회

반공영화 감상

반공좌담회

반공강연회

정치사상사·사회사상사·경제학설사 등 과목중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비판

공산주의비판(연속강좌)

그러나, 이들 방법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에 대하여 대학 수준에서 해야 할 원칙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대응교육이

라면 아마도 공산주의비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 가운데에서 적어도 한 학기정도의 길이로써, 공산주의의 이론을 비판하는 강좌를 갖고 있는 곳은 극히 한정되어 있어서 당장에 알 수 있는 것으로는 경희대학과 이화대학을 들 수 있을 뿐이다.

첫째, 경희대학의 경우를 보면 1963년 부터 1968년 까지 본 위원이 담당한 뒤를 이어 지금은 전두열씨의 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동씨의 저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붕괴」를 중심으로 학점에 관계없이 정.외과 학생들과 그 밖에 희망자들에 대하여 강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화대학의 경우를 보면 1961년 이래 이 공산주의비판 강좌가 설치되고 있으며, 경희대학의 경우와는 달리 정치과 3, 4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택과목 (3학점)으로서, 1학기를 1기로 연중 강의되고 있는데, 강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머리말

가. 공산주의이론

(1) 서론(헤겔에서 맑스까지)

(2) 경제결정론

(3) 계급투쟁

(4) 자본주의제도의 내적 모순

(5)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독재

(6) 레닌니즘

(7) 공산당

(8) 공산주의 기질

(9) 강의 요약

2. 공산주의의 역사적 현실

나. 소비에트 로시아

(1) 서론

(2) 정치제도

(3) 사회조직

(4) 경제체제

(5) 문화활동

다. 중공

(1) 서론

(2) 정치제도

(3) 사회조직

(4) 경제체제

(5) 문화활동

라. 북한

마. 공산세력의 대립

(1) 오늘의 공산주의

(2) 동남아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세력 특히 ㅅ공문제

(3) 이데올로기 대립과 경제<블록>의 대립(남북문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짜여 있는 이 강좌에는 44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며, 6명의 강사에 의하여 분담되고 있다.

또 이 강좌의 수강생은 지금 약 250명에 달하고 있으며, 교재는 종합적인 것을 만들기 위하여 원고 준비 까지 다 마쳤었으나 중앙정보부의 난색으로 중지하고 교재 없는 <프리이·노오트>로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당로자의 자기평가

위에서 극히 간략하게 고찰한 것이 지금 우리 나라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반공교육의 모습을 그려 아마도 부중불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몇몇 당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문교부 자체로서는 제도 상으로나 능력 면에서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대학의 반공교육이 지금으로 서는 거의 없으나 다름 없이 되어 있어서 무슨 방법으로든지 철저히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문교부 고등교육국 및 담당 장학관)

「이 강좌를 시작한지 벌써 9년이지만 이 강좌로 말미암아서 무슨 부작용 같은 것이 난 일은 없다. 우리의 국시가 반공인 이상,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적 교육은 대학에서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다른 대학에서는 여기에 별로 손을 안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하다.

물론 여기에는 자료난, 연구부족도 있어서 아직도 만족할만한 상

태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연구에 대한 편의와 자유가 좀 더 보장될 수 있다면 개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지금으로는 많은 불안과 조심이 앞선다.」(이화여대, 문리대학, 현영학 교수)

「반공교육이라고 말할 만한 것을 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란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문제가 문제이니 만큼 불안이 따르게 마련인데, 이 교육이 활발히 실시되려면 이 문제의 연구에 따르는 불안이 제도상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대학교양학부장 현승종 교수)

「아직은 반공교육이라고 이름붙힐 만한 아무 것도 실시한 일이 없으나 그 필요성 만은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이 과목을 맡길 만한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4) 앞으로의 계획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문교부에도 대학에도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에 관한 아무런 방안도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논의 조차도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도리어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금년 들어 상당히 활발히 오가고 있는 것이 실정이어서 문교부 자체 안에서 라든가 장기교육심의위원회라든가 문교부와 통일원 및 중앙정보부 사이에서라든가 대학교육연구위원회 같은 기관에서도 차츰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

격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0월 1일에 열린 대학교육연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장시간에 걸쳐서 논의되었으며 이 위원회의 구성이 서울대학교총장, 동대학 행정대학원장, 동대학공과대학장, 윤세창교수, 유달영교수, 한양대학 교공과대학장, 그 밖에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현직 중진들로써 되어 있음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제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구체적, 건설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제시 또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다만 걱정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해 보기로 합의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다.

나. 군교육에 있어서의 실정

군의 교육에 관한 계획과 실시 업무는 군의 편제상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국방부나 합동참모부로서는 군의 교육에 관한 행정적인 감독권을 보유할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에 관한 사정도 각군에 따라 다르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알아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군교육기관 가운데 대학과 동등 이상의 수준에 해당하는 학교는 국방대학원 참모대학,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 육군사관학교, 해

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이며 이들 가운데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교육이 비교적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은 국방대학원과 육군 및 공군의 사관학교인 듯 하다.

(1) 국방대학원

군교육의 최고과정인 이 학교는 1년제로서 1970년도 교육계획에 의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공산주의이론 비판

정치이론 .... 4시간

경제이론 .... 5시간

공산권 현실분석

북한 .... 90시간

소련, 중공, 동구제국 .... 90시간

즉, 총 189시간 중에서 이론에 대한 연구는 9시간 뿐이며 이 이론 비판은 외래 강사가 담당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시간 수로 미루어 짐작되는 바와 같이 극히 개략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못한다.

(2) 육군사관학교

1964년 이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동교는 제4학년 과정에서 주당 2시간으로 1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6명의 교관에 의해서 분담되고 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목표>

(1) 정규 교과과정에 반공과목을 신규로 삽입하여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2) 장차 군의 중견간부가 될 사관생도에게 반공사상을 고취시킨다.

(3) 공산주의이론의 모순성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

<교육 내용>(기초이론비판)

1. 서론(2시간)

가. 공산주의 개념규정

나. 공산주의 이론 및 운동의 전개 과정

다. 왜 공산주의를 알아야 하는가

라. 맑스주의 발생의 시대적 배경

라. 맑스주의 사상의 형성

2. 변증법적 유물론과 그 비판(5시간)

가. 변증법이란?

나. 유물론이란?

다. 변증법적 유물론

라. 변증법적 유물론 비판

3. 사적유물론과 그 비판(4시간)

가. 사적유물론이란?

나. 생산력과 생산관계

다. 상부구조와 하부구조

라. 역사의 발전 단계

마. 계급의 발생과 소멸

바. 계급투쟁

사. 사적유물론 비판

4. 맑스주의 경제이론과 그 비판(8시간)

가. 노동가치설

나. 잉여가치론

다. 그 비판

라. 자본주의 몰락이론

마. 그 비판

바.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 역사적 경험에서 본 양체제의 비교

이와 같은 기초이론 비판 이외에, 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가. 공산권 연구

나. 공산주의 이론 변천사

다. 공산주의운동의 역사와 전략전술

라. 공산주의세계의 정책과 현실

마. 북한의 역사와 현실

(3) 공군사관학교

동교의 공산주의 비판 교육은 1965년 제1학기부터 실시되었으며 제3학년 제2학기 과정에서 주당 4시간으로 총 84시간을 배당하고 2명의 교관으로 하여금 분담케 하고 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의 목표>

「본 과정은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초인 맑스·레닌주의를 분석하여 그 허구성과 모순성을 비판하고 소련·중공·동구·북한 등 현 공산주의국가에서의 적용상황을 분석함으로써 확고한 반공이론을 갖게 한다.」

<교육 내용>

1. 맑스주의 이전의 사회주의 이론

가. 고대 사회주의 사상

나. 근대 사회주의 사상

다. 맑스주의의 초석

2. 기초이론 비판

가. 공산주의의 철학이론 비판

(1) 맑스주의의 철학적 배경

(2) 변증법적 유물론

(3) 유물사관

(4) 모사설

(5) 비판

나 공산주의 경제이론

(1) 노동가치설

(2) 잉여가치설

(3) 자본주의 붕괴설

(4) 비판

다. 공산주의의 정치이론

(1) 계급국가론

(2) 폭력혁명론

(3)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4) 비판

라. 공산주의 전략전술론

3. 공산주의운동 변천사

가. 소련

나. 중공

다. 동구공산주의

라. 월맹과 외몽고

마. 유고슬라비아

바. 공산세계의 분극화

사. 코민테른

아. 코민포름

4. 북한의 역사와 현실

가. 불세비즘의 이식

나. 북한의 소비에트화

다. 혁명과 독재의 이데올로기이

이상에서 고찰한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와같이 대학 및 군교육에 있어서 실시되고 있는 반공교육의 전부가 아니며 이들 부분적 고찰이나마 군의 보안상의 이유로 자료나 의견의 제공을 꺼리는 담당관들의 조심으로 말미암아서 더이상 상세한 것을 알아 낸다는 것은 좀 다른 방법에 의해서라야 만 기대할 수 있을것 같다.

그러면 빈약한 것이나마 이것을 토대로 반공교육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시도해 보기로 하겠다.

## 4. 평　　가

### 가. 대　학

(1) 승공교육의 핵과 요건

앞에서 승공교육의 목표와 본질을 밝히면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서 요청되고 있는 것은, 반공교육이 아니라 승공교육으로서, 이 승공교육이란 것은, 대안이 있는 교육에 의하여, 공산주의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르쳐 길러 주는 것을 그 목표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승공교육이 충분히 효과적으로 실시되려면, 공산주의의 이론과 운동에 관한 역사적 연구나 공산주의사회의 생활과 현실에 관한 폭로도 필요하지 않은것은 아니지만, 이 보다도 한층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승공교육이다. 왜냐하면, 서론의 〃다〃에서도 본 바와 같이 온 세계의 자본주의 국가를 말살하려고 하는 「모든 나라의 공산당에 있어서 최대의 힘의 원천」이며, 공산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할것을 본질적 임무로 삼고 있는 북괴에 있어서는, 「(적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이론적 무기····· 강력한 정신적 무기」로 되어 있는 것이 다름아닌 공산주의의 사상·이론인 것이니, 따라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나라의 존립과 겨레의 운명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사상·이론으로서의 공산주의인 것이며, 또 따라서,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서 요청되고 있는 승공교육이, 공산주의를 이기기 위해서 필요로 하

고 있는 대안이란것 역시 공산주의의 사상·이론에 대한 대안이 아니면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이론인 것이다.

그러면 실정은 어떠한가? 3의 "가" (2)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에 대한 대응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실시하고 있는 몇몇 학교의 몇가지 방법을 보더라도 공산주의사회의 실정 폭로가 아니면 시사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마 정규과목이 아닌 과외활동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나지 못하고 있다.

또 공산주의의 이론을 취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간수에 있어서 말이 안될 만큼 적은것은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희대학이나 이화대학의 경우와 같이 1학기 또는 1년동안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내용의 질적인 면에서 볼 때, 불만족하다기 보다는 오히려 부적당하다고 말하는 편이 옳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들 강좌가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바른 이론위에서 실시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이론이란 것은, 대체로 말해서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의 요소 또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은 이것을 무시하고서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

이다.

첫째는 이론의 체계가 고도의 종합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의 학설은……인류가 19 세기에 독일의 철학, 영국의 경제학 및 불란서의 사회주의라는 형태로 만들어 낸 최선의 거의 정당한 상속자이다.」 (레닌 : 마르크스주의의 세개의 원천과 세개의 구성부분)

「<마르크스>는, 세개의 최선진국에 속하는 19 세기의 세개의 정신적 주조, 즉 독일의 고전철학, 영국의 고전경제학 및 불란서의 혁명적 제학설 일반과 결합된 불란서 사회주의의 계승자이며 천재적 완성자이다.」 (레닌 : 칼·마르크스)

둘째는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사유 등, 이들 전체의 운동과정을 일관해서 연구·설명하는 철학적 방법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전체를 근본으로 부터 개조하는 일에—역사에, 자연과학에, 철학에, 노동계급의 정책과 전술에 유물론적 변증법을 적용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레닌 :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왕복서한)

세째는 가치론을 설명원리로 삼는 경제학에 의해서, 근세사회의 경제적 운동법칙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그의 공산주의적 제요구를 도덕적 감정위에 건설하지 않고, 우리들의 눈 앞에서 날마다 더욱더 진행되고 있는 자본제생산방법의 필연적 붕괴위에 세웠다.」 (엥겔스 : 철학의 빈곤 서문)

「시민적 사회의 해부적 연구는 이것을 경제학에서 구해야한다.」

(마르크스 : 경제학비판 서언)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바 근대적 생산방법에 관한 전체 견해는, <마르크스>의 가치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칼·카우츠키 : 마르크스주의 수정의 박론)

네째는 행동의 주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부르좌지이>와 대립하고 있는 모든 계급중에서 <프롤레타리아아트>만이 오로지 진실한 혁명적 계급이다.」 (공산당 선언)

「<마르크스>학설의 주 요점은, <프롤레타리아아트>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자로서 맡아할 바 세계사적 역할을 밝힌 것이다.」(레닌 : 마르크스 학설의 역사적 운명)

다섯째는 이 이론체계가 단순한 <지식>의 체계에서 그치지를 않고, 행동의 지침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철학자들은 세계를 다만 여러 가지로 해석해 왔을 뿐이다.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 문제일 터인데.」 (마르크스·엥겔스 : 포이엘빠흐에 관한 테에제)

「우리들의 학설은 도그마 (교의)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엥겔스)

여섯째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명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아트>가 잃은 것은 저들의 철쇄뿐이고, 그들이 얻을 것은 전 세계이다.」 (공산당 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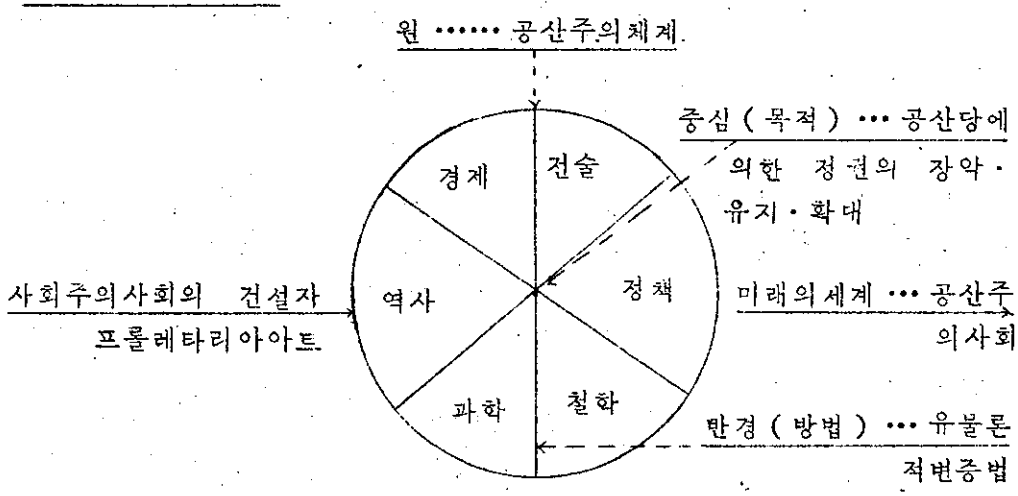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치·경제학은, 노동계급이 착취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 사회주의와 공산

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방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해명한다.」
(정치·경제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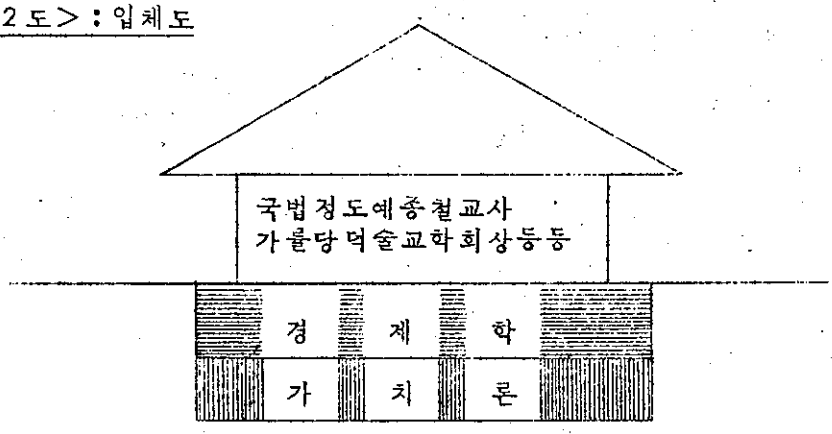
이상 들어본 여섯가지가 대체로 말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즉 공산주의의 이론체계가 갖고있는 중요한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체계의 윤곽 및 구조와 각 요소 서로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것을 그림으로써 나타내 보면 아마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제 1 도> : 평면도




<제 2 도> : 입체도



즉 첫째 그림은 공산주의 이론체계의 평면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 자체를 원으로 나타낸다면, 이 원은 그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경제학·역사·과학·<프롤레타리아>의 정책과 전술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빈틈 없이 짜여져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원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즉 목적)과 반경 (즉 방법)이 같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의 이론체계란것은, 공산당에 의한 정권의 장악(즉, 폭력적 계급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의 타도)과 그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삼고, 유물론적 변증법이라는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엮어진 경제학·역사·과학·철학 등의 종합적 체계란 것을 이 그림은 보여 주고 있다.

이리하여 수래바퀴 꼴로 나타난 이 이론은, 사회주의혁명의 주체 세력인 <프롤레타리아아트>에 의해서 체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실천의 결과로 도래하게 될 미래사회가 곧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이다.

다음 둘째 그림은, 공산주의의 이론체계안에서 각 요소가 놓여 있는 위치와 관계, 즉, 경제학이 이 체계안에서 갖고있는 위치와 중요성에 관해서 보여주고 있다.

얼핏 보아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입체도는 이른바 유물사관의 <공식>가운데 다음부분에 근거하고 하다.

「사회의 경제적 구조는, 현실의 토대를 이루고, 법제적·정치적 상부구조는 그 위에 서며, 일정한 사회적 의식형태가 그때 적응한다.」

다시 말해서 유물사관의 설명에 의하면 현실의 사회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의 두 부분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건물의 토대에 비유할 수 있는 이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 사회의 경제적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구조되어 있는현실 사회의 반영인 우리들의 지식체계에 있어서, 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적 구조의 반영인 경제학이 이 이론체계의 토대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 그 중심적 부분을 구성한다는 것을 이 입체도는 보여주고 있다.

지금 앞에서 간단히 고찰한 것이 공산주의의 여섯가지 요소 내지 특징이다. 그러므로 요약해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상이란, 「<부르좌지이>의 몰락과 <프롤레타리아아트>의 승리는 똑같이 불가피한것」 (공산당 선언)임을 믿고 주장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자본주의의 필연적 멸망 및 타도의 정당성과 공산주의의 필연적 승리 및 건설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하나의 <사회개조론>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필연성과 정당성·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곧 공산주의 이론인 것이다.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승공교육이 <대안>을 그 절대적 요건으로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란것은 원래가<도그마> (교의)—즉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행동의 지침>—즉 사회개조의 이론과 방법에 있어서의 주장인바, 이와 같은 사회개조론으로서의 공산주의와 맞서 이길 수 있는 교육이란 공산주의식 사회개조론을 다만 <부정>하는 것 만으로써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반드시 이론에 있어서는 한층

더 과학적이고 방법에 있어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며, 목표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우리들 자신의 사회개조론—즉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사상·이론을 하나의 사회개조론으로서 볼 때 그것을 대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이겨야만 되는 우리의 승공교육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을 어떻게 다루어 비판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종합적·연관적·체계적 비판이다. 왜냐하면 종합적이고도 연관성 높은 <체계>야말로, 공산주의 이론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이론을 옳게 알고 바르게 비판하려면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를 서로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취급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들 서로 사이의 관계와 각개 요소가 전체적 목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계, 그리고 이론과 현실과의 관계등 이와 같은 여러가지의 상호관계를 언제나 관심에 두고, 하나의 <체계로서> 다루어 비판하지 않으면 안된다.

둘째는 확립된 방법위에 선 일관성 있는 비판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립된 방법을 갖고 있다는 점이 공산주의의 또 하나 중요한 특징으로 되어 있는 바, 공산주의의 이론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것도 이 확립된 방법이 일관해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부분을 맡아 하는 공동 연구에 있어서 그 성과를 합쳐서 하나의 체계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그러므로 천개 만개의 부분품을 맞춰서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통일된 하나의 청사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이론의 여러 요소와 수많은 부분에 대한 하나 하나의 비판이 살아서 한개의 강력한 <체계적 대안>이 되기를 바란다면, 더구나 공동연구의 방법이 갖고 있는 기점을 살려서 보다 큰 성과를 얻고저 원한다면 방법의 확립과 통일이란 이 문제는 승공교육을 위한 공산주의 비판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건으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세째는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비판이 다.

공산주의 이론체계 가운데에서 경제학이 그 중심 또는 토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아 알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바로 비판하려면 이 경제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업는 당연한 이치이다.

(2) 승공교육의 부재

승공교육을 위한 공산주의의 비판·방법이 위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비추어 현실의 그것은 과연 어떠한가.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지금 극소수의 몇개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산주의 이론 비판은 그것이 다만 만족할만한 것이 못된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심히 부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강의들은

첫째로 대안이란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 밖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비판을 이길 수 있는 교육이란 저들의 사회개조론 보다도 더 낳은 대안—즉 이론에 있어서는 한층 더 과학적이고 방법에 있어서는 훨씬 더 현실적이며, 그 목표에 있어서는 전진적인 우리들 자신의 사회개조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그것은 어떠냐하면 이 <다 낳은 대안>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무런 고려도 하는 일이 없이 다만 공산주의이론은 맞지 않는 것이며 모순에 차 있는 것으로서 비진리임을 결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말하자면 반대를 위한 비판, 비판을 위한 비판, 한마디로 <반>을 위한 비판으로 시종하고 있다.

반공이 <국시>라고 까지 강조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적> 일꾼이 되어야 할 대학생들이 공산주의비판을 <어용시>하게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보다도 이론에 더 마음 끌리는 이 젊은 지성인들에게 더 낳은 이론을 제시하지 못하며 현실에 대한 욕구불만과 항의,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현실참여욕에 차 있는 이들 소영웅들에게 저들의 양심과 정의감과 이상을 달래어 앞으로 이끌만한 전진적 사회개조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비판>이란 결국 현실에 대한 전면적 변호론밖에 안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현실 변호론을 「어용시>한다는 것은 도리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둘째로 종래의 공산주의 비판은 분해적·단편적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다.

즉 공산주의이론의 생명인 <체계>를 개개의 요소에로—경제학·

철학·역사·정치학 등으로 분해한 다음 다시 이것을 분해할 수 있는 한의 작은 문제에 까지 분해한 뒤에 이 하나 하나를 다른 문제나 요소들과는 거의 아무런 연관도 없이 단편적·각개격파식으로 치고 받고 한 다음 이것을 그대로 내던져 둔 채 — 거기서 그쳐버림으로써 자신의 비판성과를 종합하여 하나의 체계에로 조립한다는 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비판>이 <대안>이란 문제를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방법은 마치 벌의 나는 힘을 부정하기 위하여 날개를 떼고 다리를 자르고 몸을 갈기갈기 찢어 버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엔진>의 힘을 부정하기 위하여 그것을 완전히 부분품에로 분해한 다음 이 하나 하나의 부분품에 관해서 그 <무력>을 증명하려고 드는 것과 극히 흡사하여 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공산주의이론을 비판하는 방법으로서 심히 부적당한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세째로 종래의 비판은 스스로의 확립된 방법 위에서 하는 일관성 있는 비판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

즉 비판자들은 공산주의이론의 비진리성을 폭로하여 이것을 부정·반대·배척하는데에만 열중한 나머지 이 목적에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 아무리 입장과 방법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견해라도 상관없이 인용·원용·수집함으로써 그 자신은 아무런 일관된 방법도 입장도 없는 단순한 부정의 <더미>를 만들어 내는데 그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 비판교육

을 2명 이상의 강사들이 분담 강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강사 상호간에 공산주의를 취급·비판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렇다 할 횡적 연락이나 통일의 노력이 있어 보이지를 않으며 근본적으로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 역시 <더 낳은 대안>이란 문제를 전혀 망각한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결과로서 승공교육을 위한 비판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방법이라 할 것이다.

네째로 이제까지의 비판은 공산주의이론의 중심이 경제학에 있다는 이 사실을 경시 내지 무시하고 있으며 경제학을 비판할 경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이론체계는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중심 또는 토대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학이므로 공산주의를 옳게 이해하고 바로 비판하려면 다름 아닌 이 경제학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학의 강단에서 하고 있는 비판은 아무 중심도 중점도 없이 모든 요소를 평면적으로 배열·평가하는 입장에 서서 그리고 흔히는 자기의 전공분야에 중점을 두는 주관적 평가의 기초 위에서 하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은 현행의 공산주의 이론이고 현행의 공산주의 경제학은 그 이론체계가 자본주의를 분석·설명하는 전반 부분과 공산주의의 건설 방법을 설명하는 후반부분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산주의를 하나의 사회개조론으로서 볼 때 공산주의의 사상적 핵 가운데서도 또 핵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산주의 건설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비판에서는 여기에 대하여는 다만 귀순자·전향자들에 의한 <실정 폭로>를 일삼아 왔을 뿐 이론의 차원에서는 거의 전혀 취급된 일이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그나마 극소수의 몇개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는 공산주의 비판이란 것은 비판자 자신은 일관성 있는 아무런 확립된 방법도 없고 대안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일도 없이 더구나 공산주의사상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처음부터 빠뜨린 채로 공산주의이론을 <체계>아닌 개개의 <단편>으로서 취급하여 다만, <아니다> <틀렸다>를 연발하는 식의 비판—한마디로 말해서 <승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반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비판인 것이다.

이리하여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은 승공교국의 완전한 부재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반공교육이나마도 거의 없으나 마찬가지의 미미한 상태에 농여있어서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앞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닌 실정에 있다.

물론 그나마의 반공교육이라도 아주 없느니 보다야 낫다 할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아니다> <틀렸다>식의 공산주의 비판이 도리어 역효과를 빚어내고 있다는 일면도 그대로 보아 넘길 수는 없다. 즉 이 방식의 비판이란 것은 비판의 대상에 오른 모든 문제, 모든 이론을 남김없이 반대·부정·배척할수록 비판 그 자체로서는 더욱더 철저한 것으로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건전한 상식과 지성으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져 간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이 비판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왜냐하면 한 두 <페이지>도 아닌 어떤 이론이나 사상이 진리의 한 쪼각도 포함하지 않은 완전한 오류나 허위로써만 구성되어 있다는 따위의 비판을 건전한 상식이나 지성으로서는 얼핏 믿기에는 주저나 반발이 앞서기 때문이니 더구나 그 량에 있어서나 현실적 영향력에 있어서나 공산주의와 같이 많고 크고 한 경우에 있어서랴.

사실 우리나라의 학계와 대학생들 사이에는 지금 공산주의비판이란 것을 일종의 <말의 폭력> 또는 <학문의 외도>같은 것으로 여겨 냉담 내지 혐오의 눈초리로 흘겨 보는 눈들이 일부에는 없지 않은 바 이것이 바로 승공교육의 부재—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이제까지의 방법의 잘못에서 오는 결과란것을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이라면 아마 누구도 부인하려 들지는 않을 것이다.

반공을 국시라고 까지 말하는 이나라에서 바로 이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연구는 마땅히 <국시의 학>으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는 못하나마 도리어 학문의 외도로 여겨지고 혐오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로서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하며 바로잡아져야 할 참으로 중대한 문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 군교육

군의 각급 교육 그 가운데서도 일반 대학과 수준을 같이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량적인 면에서 얼핏 보기에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에 대한 대응교육이 일반 대학의 경우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육사와 공사의 80 여시간도 그러하려니와 그 가운데서도 특히 국방대학원의 약 190 시간은 전국의 어떤 교육기관에 비하더라도 아마 가장 많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단 그 내용의 면, 질적인 면에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승공교육의 부재>란 점에 있어서 사정은 일반 대학의 경우에 비하여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군교육에 있어서는 시간수가 꽤 많기 때문에 대개 2명이상의 강사가 분야를 나누어 맡고 있는데 이들 강사 사이에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는 방법에 관해서 미리 통일을 기하고 있지도 않고 또 그 필요를 느끼고 있지도 않으며 각자는 자기 나름으로 일관된 방법도 대안도 없는 <아니다> <틀렸다>식의 순전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앞의 개황에서 본바와 같이 육군사관학교의 공산주의 비판교육은 그 목표를 <반공사상의 고취>와 <공산주의이론의 모순성을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에 두고 있으며 공군사관학교의 경우는 <맑스·레닌주의를 분석하여 그 허구성과 모순성을 비판하고 ·····확고한 반공이념을 갖게 하는>데에 두고 있어서 싸와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비판·반대하는 입장에 머물고 있으며 <더

낳은 대안>에 의한 <승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안이 없는 단순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의 이론을 비판함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사상의 핵 가운데에서도 또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산주의 건설론(이른바 사회주의경제론)을 송두리 채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역시 일반대학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한 마디로 말해서 지금 군의 사관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를 다만 반대·부정·배척하는데 그치는 <반공>교육인 것이지, 더 낳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승공>교육이 아닌 것이며 이 점에 있어서 일반 대학의 경우와 비교하여 다를 바 아무 것도 없다 할 것이다.

다. 승공교육 부재의 원인

서론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공산주의의 도전은 이 지구표면으로 부터 우리를 완전히 말살해 버릴 것을 목표로 하는 장기계속적·전면적 도전인 것이며 이에 맞서는 우리의 투쟁 또한 장기계속적인 동시에 전면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는 바 우리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교육은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에 대한 하나의 대응 투쟁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육은 적을 이겨야만 하는 <투쟁>인 것이며 따라서 이 교육은 단순한 <반공>교육에 그칠 것이 아니라 <승공>교육으로 되어야만 한다는 것 또한 극히 당연한 사실로서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사리가 분명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와의 싸움에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한국의 <지도적>인격을 길러내는 것으로써 목적을 삼고 있는 이 나라의 대학과 이에 준하는 각급 군교육에는 왜 <승공>교육이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대학당국이나 문교부는 이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결코 그런것은 아니다. 문교부도 대학당국도 승공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또 강조도 하고 있다. 그러기에 문교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횡적으로 통일원 및 중앙정보부와 최근에도 협의한 일이 있으며 서울대학에서는 이미 1960년 가을에 학생들의 사상 선도를 주 목적으로 영국의 <튜우터>제도를 검토해 본 일이 있고, 중앙정보부 7국은 수년전부터 대학에 있어서의 <반공>교육의 본격적 실시를 문교 당국에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 본 위원이 직접 면접한 문교당국과 각 대학의 간부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같이 「하기는 꼭 해야 할텐데」 「급하기는 급한 문젠데」라고 말함으로써 오늘의 관계당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무관심하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전에 없던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느끼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필요성을 이처럼 알고 또 느끼고 있으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승공>교육은 고사하고 반공교육조차도 거의 있으나 마나로 <무방비 상태>에 가깝게 방치되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 원인을 세세히 찾아 보면 물론 여러가지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비교적 뚜렷한 것 만을 찾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근인 (近因)

승공교육 부재 또는 무방비상태로 나타나 보이는 가까운 원인가운데 하나는 이 승공교육을 담당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대학의 강단에서 공산주의를 다룬다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과정과는 달라서 본격적으로 그 이론을 깊이 다루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자면 공산주의를 깊이 연구한 교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실정은 어떠냐 하면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한 교수도 없고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반공>교육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산주의자를 만드는 교육으로 되어, 역효과 내지 부작용이 생길 것이 두려워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모대학 Y모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교양학부 과정에서 반공교육을 실시하는 문제가 논의된 일은 있으나 막상 실시할려고 해도 과연 이것을 어떤 교수에게 맡겨야 할지 적당한 사람이 문제이다.」

또 K대학교 모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는 끌되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내지 않고 할 수 있을지 …….」

대학에 있어서의 승공교육 부재의 또하나 원인은 <만일의 경우>

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반공교육을 실시하다가 본의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슨 일로「반공법」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될른지도 모른다는 불안때문에 학교 당국이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보부 제3과장이던 모씨가 1967년에 「북한 20년」이란 저서로 말미암아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당시 아세아문제연구소 K모 연구원의 담당으로 실시중에 있던 북한 실정을 폭로하는 반공 강좌를 중지하고 만 고려대학의 경우가 그 하나의 예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동교 H모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 20년이란 책 자체는 북한의 실정을 폭로한 반공서적이고 그 저자는 직접 그 방면의 담당공무원인데도 문제가 되어 조사를 받는데, 우리 같이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야 언제 무슨 일로 오해를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와 논의에 대한 좀 더 확실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정규과목도 아닌 이 반공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2) 원인(遠因)

(가) 공산주의이론 연구의 외면

지금 이 나라에는 125개의 대학에 6,300명이 넘는 교수가 있다. 그런데 승공교육을 담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생각컨대, 여기에는 다시 몇가지의 원인이 있는 바 그 하나는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연구분야가 종래 공산주의의 이론 연구를 거의 외면해 왔다는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려대학교의 아세아문제연구소를 비롯하여 문공부 산하의 내외문제연구소 한국반공연맹의 공산주의문제연구소 한재진씨가 이끄는 공산권문제연구소 등 몇개의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있어서 공산권의 실정조사와 공산주의에 관한 역사적 연구의 영역에서는 어느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사상·이론의 차원에서 하는 연구는 이제까지에도 거의 없었고 아직은 별로 계획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외문제연구소

사단법인체로 된 이 연구소는 문공부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것으로서 그 정관 제3조가 말해 주고 있드시 「공보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치·경제 및 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와 여론조사 기타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연구 업적을 보면 「내외문고」의 이름으로 「북한 공산괴뢰집단의 흑피서」, 「국제 공산주의의 전략과 목표」, 「오늘의 북한」 「어떤 귀순자의 수기」, 「괴집의 대남전략사」 등 20 여종의 문고와 전기 「북한 20 년」, 「북한요람」 등 단행본과 1965 년 3월부터 월간 「시사」지를 내고 있다.

② 공산주의문제연구소

이 연구소는 한국반공연맹의 부설기관으로서, 1967 년에 발족한 것인데 사업계획으로서는 (가) 공산주의 이론 및 공산권 실태

분석 (나) 반공이론 연구 (다) 북한 연구 (라) 통일을 위한 종합적 정책자료 제공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 자체로서는 일천한 역사와 자금난 등 원인으로 특히 거론할만할 업적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연구소의 전신인 한국 반공연맹 교육연구부 당시로부터 착수·계속되어 온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간행 사업을 맡아 하고 있다.

「공산주의문제 연구」(계간), 「공산주의 비판」(격월간, 번역총서), 「자유의 증언」(월간 계몽지), 「자유의 종」(위와 같음), 「자유공론」(월간 계몽교양지), 「자유문고」(「모스크바의 붉은 장학금」, 「시계와 여자」, 「피의 유형지」 등)

③ 아세아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 부설로 1957년에 창설된 이 연구소는 1961년 12월에 공산권 연구소의 정부승인을 얻었으며 미국 <포오드>재단의 자금원조로 비교적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공산권연구실」에 의한 업적과 계획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차 연구 (1962. 9 ~ 1965. 8) 「한국공산주의운동사」(상)
「북한 공산권의 이데올로기 전개과정」, 「북한 정치기구론」
「조선노동당의 형성과 발전」, 「북한의 경제정책과 생산관리」

제2차 연구 (1966. 3 ~)
「한국공산주의운동사」(하), 「북한7개년계획의 분석」
「북한공산정권의 이데올로기 전개과정」, 「북한의 통일방안 연구」
「북한의 대일관계 연구」, 「북한의 대A·A정책」

「북한의 수원 연구」, 「북한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 교육」
「북한의 종합법령편찬에 관한 연구」

이밖에도 북한 및 공산권에 관한 21개의 연구 과제가 제3차 연구계획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차례의 강연회 및 연구발표회를 가진바 있다.

④ 공산권문제연구소

한재덕씨가 이끌고 있는 이 연구소는 1963년에 내외문화사의 이름으로 발족한 이래 「김일성을 고발한다」, 「내가 겪은 공산주의」 등을 비롯하여 많은 공산주의 체험기 실정 폭로기를 내놓음으로써 이 나라 반공운동에 적지않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소로서 특히 소개되어야 할 업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론과 현실 비판전서」를 들어야 할 것이다.

이 전서는

제1권 「맑스·레닌주의」(이론비판편), 제2권 「맑스·레닌주의」(이론의 역사적 변천)

제3권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와 전략·전술」

제4권 「공산주의 세계의 정책과현실」, 제5권 「북한의 역사와 현실」, 제6권 「공산주의 문헌들과 그 해제」, 별권 등 7권으로 되어 있는 바, 국내 여러 연구소 가운데에서 공산주의의 이론을 취급하기로는 이 연구소의 전서가 처음이란 점에서 더욱 이의가 크다 할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연구분야는 대체로 공산주의의 이론 연구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심호민씨의 붓으로 이루어진 이 전서의 처음 두권은 저자가 1956년에 이미 「공산주의의 이론과 역사」란 책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연구의 성과 자체는 연구소의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자 개인의 것이라고 말하는 편이 아마 사실에 더 가까울 것이며 양씨의 이 공산주의 비판서들은 그 방면의 연구가 이 나라에는 거의 없었던 시기에 있어서 하나의 개척자적 사명을 다해 왔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국내에는 지금 몇몇 공산주의 연구기관이 있어서 여러모로 연구활동에 힘을 기우려 종사하고 있기는 하나 공산주의의 이론 연구의 분야에 있어서는 <연구기관>이 그 자체로서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업적은 아직도 눈에 뜨이지를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 밖에 외서의 번역서를 논외로 친다면 공산주의의 이론에 대한 연구 성과로서는 홍지영씨의 「공산주의이론비판」과 전두열씨의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붕괴」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이밖에는 공산주의의 이론 가운데 어떤 작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다룬 많지않은 논문들을 산견할 수 있는 정도가 고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이론·연구 분야에 있어서 귀중한 성과라고 말해야 할 이 얼마 안되는 것이나마도 이것을 일단 그 내용의 면에서 검토·평가하게 되면 여기에 적지않은 문제가 잠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무엇이냐 하면 이 이론 비판서들이 하나같이 승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공을 위한 것이란 사실이며,

뿐만 아니라 <승공>이 <반공>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아도 좋은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관심이나 반성조차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소개된 비판서들은 스스로라는 일관성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고 더구나 대안이란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지적하는 일 조차도 없이 체계가 생명인 공산주의의 이론을 단순한 단편의 집적으로 취급하면서 비교적 자기가 잘 안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아니다> <틀렸다>식의 비판에<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비판이 전혀 필요없다던가 무가치하다던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어느면에서의 가치와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사상이나 이론의 문제를 차원 높게 다루기에는 그 지적 수준이 아직 충분히 높지못한층을 대상으로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도록—반대·부정·배척하도록 만드는데에는 어느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결코 모르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에 대한 우리의 관계는 곧 투쟁이고 이 투쟁에서는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겨야>만 할 것인데 저들 보다 <더 낳은 대안>의 준비 없이 다만, <아니다> <틀렸다>를 되풀이 하는 것 만으로써는 <반대>는 할 수 있어도 <승리>할 수는 없다는 사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의 <승공>교육의 부재는 그 깊고 먼 원인의 하나를 바로 이 이론 연구에 있어서의 <승공>부재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말이다.

(나) 정치의 근시안적 단견

승공교육 부재의 또 하나 먼 원인은 이 나라 정치의 근시안적 단견인 바, 이 단견은 승공교육 부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동시에 또 공산주의의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이론 연구 부재의 원인으로도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의 싸움에다가 겨레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의 사상이란 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닌 바로 현실일진대, 저들을 이김으로써 나의 생존을 지키려면 공산주의의 다른 도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사상적 도전에 대해서도 이겨야 하며 이기려면, 저들의 사상·이론에 대한 깊고도 철저한 연구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이전의 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의 정치가 공산주의의 도전 특히 그 사상적 도전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고 이 도전으로 부터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성의와 지혜와 용기를 진실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된 즉시로 이 공산주의를 그 사상·이론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문제 까지도 포함하는 종합적인 연구기관의 설립을 마땅히 서둘러 실현했어야 만 했던 것이다. 아니면 휴전 직후쯤은 여기에 생각이 미쳤어야 할 것이며 아무리 늦는다 하더라도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반공체제를 재정비·강화할 것」

을 공약의 첫머리에 내건 군사혁명정부쯤은 다른 무엇을 제쳐 놓고서라도 여기에 첫손을 댔어야만 했을 것으로 생각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사혁명정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제3공화국 치하의 오늘 이 시점 까지도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는 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문제를 가로맡을 만한 연구기관 하나가 눈에 뜨이지를 않고 있으며 그 보다도 문제자체가 아직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채 있는듯 한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것은 반공 한국의 앞날의 운명을 위해서 참으로 한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 할 것이다.

1966년 12월 6·7 양일에 걸쳐서 있었던 「국토통일 연구기구에 관한 공청회」에서도 지적되었고, 반공을 반민족으로 결론짓는 일부 대학생들에 의해서 그 논거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무성의>인 바 우리 정부가 통일에 대하여 <성의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된 중대한 원인의 하나가 아마도 위와 같은 정치의 근시적 단견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 패배주의

반공을 국시라고 까지 강조해 말하고 승공통일을 성업이라고 까지 높히 평가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교육에는 승공교육이 없고 연구에는 승공을 위한 연구가 없으며 정치에는 사상투쟁에 있어서의 승공의 경륜이 없는 것—이것이 믿기는 어려우나 우리의 실정이다.

그러면 다시 그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컨대 여기에는 얼핏 보기보다도 한층 깊고도 중대한 다음과 같은 원인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말하자면 공산주의 사상·공산주의이론에 대한 일종의 <패배주의>이다. 공산주의의 사상이나 이론은 이론으로써는 이길 수 가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 대부분은 싸우기도 전에 그리고 싸와 보려고 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지고 들어가는 이 태도가 지금 학계와 교육계와 정계 까지를 포함하는 우리 사회의 넓은 영역에 걸쳐서 그 바닥에 깊이 그리고 완고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권일씨가 재일거류민단장으로 있을 때 귀국한 기회에 방문하고 민단의 대 조총연계 투쟁 역량의 강화책으로 민단 간부에 대한 <승공>훈련을 권했던 바 그는 단 한마디로써 이렇게 대답한 일이 있다.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론으로 이깁니까.」 마치 공산주의를 이론을 이겨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며 도리어 상식에 벗어난다는 듯한 어조였다.

1966년 8월 당시에 서울교도소장이던 모씨는 재소미전향 공산간첩들과의 토론 기회를 갖고져 청한 본 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부하고 나옴으로써 설득하는 데 두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였다.

「뜻은 좋으나 그만두는 것이 장에 좋으실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전향시켜야 하는 직책상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이제까지에 수 없이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강사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종종 있읍니다.

우리는 다년에 걸친 체험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는 이론으로써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결론을 얻고 있읍니다.」

또 전 공보부 조사국 제3과장과 중앙방송국 대공과장을 거친 바 있는 모씨는 그가 대공과장으로 재직하던 약 2년동안 「우리나라에는 공산주의이론을 취급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이론·비판은 할 수 가 없다」고 생각함으로써 여러해 동안 계속해 온 이 <프로>를 삭제하여 「공산주의 이론 비판」이 없는 대공방송을 실시하였다.

또 앞에서 〃3〃의 '가' 부분에도 적은 바와 같이 문교부의 고등교육국 및 담당 장학관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시국의 움직임으로 보아 대학 교육과정에서도 반공교육이 철저히 실시 되어야 하겠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리 없으나,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대학의 수준에 맞추어서 공산주의를 이론적으로 취급했을 때 과연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있겠는지 이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는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으니 아마, 통일원 같은데서 앞으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현 국회모의원은 대학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진한 본 위원의 사견에 대하여 「부작용이 날 걸요·····」하고 말끝을 흐리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들을 심히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문제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공산주의의 사상·이론에 대한 패배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리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이나라 각계 지도층과 지식층, 일반의 정신적 대결·자세는 <불안><소극><회피><체념> 등으로 얼룩져 있음을 가리울 길이 없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이 패배주의를 청산하는 일은 좁게는 우리의 승공교육을 궤도 위에 올려 놓는 일을 위하여 그리고 넓게는 국제공산주의와 북괴의 도전을 물리침으로써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고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기 위하여 절실하고도 또 시급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5. 승공교육의 개선책

### 가. 문제의 재확인 —그 소재와 성격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는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군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승공교육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려고 시도했으며 아울러서 이 문제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대강은 언급이 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종래 이 문제는 그래서는 안될 사람들로 부터 많은 오해를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이 실정이므로 그 개선책을 알아 보기에 앞서서 문제의 소재와 그 성격에 대하여 간명히 재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문제점은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대학수준의 <승공>교육에 한해서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반공>교육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는 관계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수준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실시되지 않고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있어서의 <반공>교육에 유능한 반공교사를 공급할 수 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대학수준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성격을 띠게 된다.

첫째는 이제까지 일부 대학에서 산발적으로 나마 해 온 <반공>

교육을 다만 <량>적으로 강화·실시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공> 교육을 <승공>교육에도 차원을 높이는 <질>적인 문제이며

둘째는 필수과목으로 하느냐 선택과목으로 하느냐 라든가 독립된 과를 두느냐 단순한 과목으로 하느냐 라든가 하는 교육<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준비될 수 있느냐 하는 교육 이전 단계의 문제이며 따라서

세째는 교육심리학이나 교수방법 등 교육학의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사상·이론에 대한 기본적 <연구>의 영역에서 해결이 시도되어야 할 문제이며

네째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조사>·<발견>하는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아직 없던 것을 <창조>·<발명>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의 연구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로는 <승공>사상이니 <승공>교육이니 하고 간단히 말하지만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을 <더 많은 대안>에 의해서 이긴다든가 극복한다든가 하는 이 문제는 1840 년대 이래 근세사회사상의 영역에서 군림해 온 바로 그 사상·이론을 대치할 만한 새로운 사상·이론을 창조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거대한 하나의 역사적사업이란 것을 알게 된다.

「통일백서」가 공산주의의 이 사상적 도전의 문제를 빠뜨렸고 대학의 교수들이 이 문제의 연구에 일찌기 관심을 돌리지 않았으며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전문기관조차도 이것을 외면해 왔고 반공을 국시라고 까지 말하는 이 나라의 정치가 이 문제에 대하여

끝내 <패배주의>를 씻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 문제가 갖고있는 위와 같은 성격과 어려움때문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승공교육의 개황을 다루고 있는 3의 부분이 굳이 광범하고 세밀한 <조사>에 악착하지 않은 까닭도 한편으로는 인원·자금·시일이 없다는데도 그 이유의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문제자체의 성질상 <조사>의 결과로서 직선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 해결의 가능성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을 더 낳은 대안에 의해서 대치·극복한다는 문제는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사업이며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든가 외국의 <원서>에 의해서라야 만 그 해답이 얻어질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느 외국의 그누구 보다도 이 문제의 해결을 가장 절박하게 갈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서>를 곧 <원서>로 아는 문화적 식민지근성을 청산하고 내가 발 버티고 서 있는 내 환경을 나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는 정신적 주권자가 될 수 만 있다면 이 문제가 반드시는 우리의 머리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만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신념에서 얻어진 성과를 바탕으로 이 문제의 해결의 가능성을 알아 본, 본 위원 자신의 <실험>을 다음에 간단히 소개하여 정책수립가와 그 집행에 참여하는 분들의 참고에 보태는 한편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필자의 견해를 밑받침해 보기로 한다.

(1) 서울교도소에서의 실험

직접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이론으로써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기 위하여 서울 교도소의 협력을 얻어 다음과 같은 방법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때 ·····1966년 9월부터 1967년 4월까지 ( 8개월간 )

곳 ····· 서울교도소 내

대상 ····· 미전향 공산간첩

인원 ····· 45명

시간수 ····· 총 80시간

방법 ····· ①참석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의 완전한 자유보장

②발언에 대한 완전한 자유 보장

③공산주의 문헌만의 사용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된다. 이 실험의 결과 10시간 이상이 토론에 참석한 자 가운데 37명 ( 약 82 % )의 전향자가 나왔다.

물론 이 성과는 토론만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른지 모른다. 담당관의 권유 역시 일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토론이 있기 이전에는

극히 미미한 실적밖에 올리지 못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성과가 결정적으로 토론의 결과였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2) 대전교도소에서의 실험

서울교도소의 성과를 신문한 대전교도소의 초빙을 받아 다음과 같은 제2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때 ····· 1967년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곳 ····· 대전교도소 내

대상 ····· 재소 미전향 공산간첩 총 700명 중에서 교육 수준이 가장 높은자

인원 ····· 55명

시간수 ····· 총 약 40시간

방법 ····· 서울교도소와 같음

이 실험의 결과 이 토론에 직접 참석한 자의 일부와 이들로부터 영향 받은 자를 합친 약 100명의 전향자가 나왔으며 동년 11월에는 이 성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표창이 있었다.

또 위의 두 개 <실험>이외에도 경희대학에서 1963년부터 1968년 사이에 정치·외교학과의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실신한 공산주의 비판을 통해서 남파된 공산간첩과 접선한 자 2명과 스스로 공산주의자라고 믿고 있던 심취자 3명이 완전한 자의에 의해서 접견을 요구하고 자신의 사상을 고백·청산 하였다.

이상은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 스스로 말하기에는 다소 쑥스러운 얘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흔히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대결해 보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함에 있어서는 약품이나 기구에 의한 증명이란 것도 불가능한 것이므로 피할 수 없이 본 위원 자신의 실험을 소개하여 공산주의자를 직접 상대로 이론으로써 저들을 이길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다. 대 상

위의 실험에 바탕해서 우리의 승공교육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대책을 적어본다.

(1) 현직담당자 연수회

승공교육의 개황 및 평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 대학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승공>교육이 아닌 <반공>교육이며, 그것 조차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형편에 있다. 그러므로 현재 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교관들의 승공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는 연수회 같은 교양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대학 강의 요원의 양성

전국의 대학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승공교육을 실시하려면 아마 적지 않은 수의 강의요원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요원을 최 단시일안에 확보하려면 특수한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인 바 이 목적을 위하여는 현직의 전임강사 또는 조교수급에 의하여 요원을 확보한 다음 강의·가상적을 상대로 하는 토론·강의·연습 등

방법으로 교육한다면 정부의 이해와 뒷받침이 충분할 경우 약 1년 이내에 일단의 목표를 달성하고 1971년도 부터는 전국의 대학이 일제히 승공교육을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은 이것으로써 완성된 것이 아니다. 뒤에 보이는 연구기관과 밀접한 연락하에 일선의 교단위에서 부디치게 될 여러가지 의문이나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해답을 얻도록 하는 한편 그들 자신의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3) 공산주의 이론기구의 설치

승공교육 부재의 원인을 말하는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승공교육이 없는 주원인의 하나는 공산주의를 사상·이론의 차원에서 하는 연구가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사상·이론의 차원에서 대결하는 전문적 연구기구를 설치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로서 궁극적으로는 승공교육에 얽힌 모든 문제가 여기로 부터 풀려 나가게 될 것이다.

(4) 관계 행정책임자에 대한 교양

승공교육의 성공적 실시를 위하여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관계 행정책임자들에 대한 교양이다.

실지에 있어서 공산주의의 문제 더구나 그 사상과 이론의 문제는 고도의 훈련과 연구를 요하는 전문적 분야로서 이 문제를 행정의 면에서 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필요한 응분의 교양이 없

이는 승공교육 자체의 충분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의 관계, 승공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문제의 소재와 성격, 일의 경중과 선후, 완급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의 유무와 각인의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 등 이와 같은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서는 승공교육에 대한 행정상의 문제를 처리·결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에 있어서는 어떠냐 하면 군교육기관의 경우는 <명령>에 의해서 그리고 기타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의 경우는 일반행정직과 아무런 구별도 없이 전혀 문외한인 일반 행정요원을 여기에 배치함으로써 시간·노력·자금에 많은 낭비와 허비를 가져오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낭비와 허비를 없애고 승공교육에서 빛나는 성과를 최단시일안에 거두려면 관계행정책임자들에 대한 교양이란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보아 넘겨서는 안될 중대한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교재편찬

승공교육을 위하여는 교재의 편찬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의 이론연구기구의 담당과 〃4〃의 '가' (1)에서 제시된 방법에 의하여 큰 곤란 없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승공교육이 바탕이 되는 승공 이론의 <연구>를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몇가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연구에 대한 원조

그 중요성에 있어서 이 보다 훨씬 못한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해서도 국고의 보조 그밖의 방법으로 도움이 있는 반면에 나라의 운명에 직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일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인 공산주의의 이론연구에 대하여 국가가 원조를 외면한다면, 이 방면의 연구에 우수한 두뇌를 집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7) 포상제도의 창설

지금 우리나라에는 각 방면에 걸쳐서 갖가지의 포상제도가 있으며 학술·연구부문이나 이른바 문화상 만 하더라도 그 시상의 종류는 각 분야별로 다채로운 바 있다.

그러나 반공을 국시라고 까지 말하는 이 나라에는 정부가 수립된지 20년이 넘는 오늘 까지도 이 방면의 업적에 대하여 포상하는 독립된 아무런 제도도 없다.

반공·승공·통일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와 노력을 자극 또는 보답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도된 가치체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부문에 대한 독립된 그리고 권위있는 포상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아마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8)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자유의 신중한 확대

승공교육 부재의 원인을 밝히는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 대학에 있어서의 반공교육조차도 극히 미미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원인의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한 통제에서 오는 불안의 압력이다.

물론 문제가 문제이니 만치 현하 우리 사회의 형편으로는 지금 당장에 아주 풀어 놓아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에 관한 교육과 연구의 활동에 대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통제는 이것을 계속 가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도리어 권장할 뿐만 아니라 제반 조건의 변동을 예의 감안하면서 자유의 확대에 신중한 관심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라. 기대할 수 있는 파급 효과

대학 수준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준비 및 실시는 비단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승공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우리의 승공통일 성업완수를 위하여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넓고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1) 승공통일의 주력부대 확보

승공교육의 성공적 실시는 첫째로 앞날의 통일과정에 있어서 승공통일투쟁의 주력부대가 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념에 찬 <지도적 인격을 도야>·확보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의 야욕과 속셈을 과학적으로 간파하게 될 이들은 공산주의에 대한 투지와 민주 수호의 신념이 더 없이 공고하게 될 것이니 이들이 사회에로 진출하기 5회 10회를 거듭함에 따라 이 나라의 정신적 승공 역량은 눈에 뜨이게 증강되게 될 것이다.

군 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은 군의 사기와 필승의 신념을 또

한층 앙양시킬 것이다. 장비의 현대화가 이 사기의 앙양을 기다려 실현하게 될 군사력의 증강은 거듭하는 경제개발의 성과와 함께 우리의 승공 물력을 증진케 할 것이니 이 물력이 앞의 정신적 승공 역량에 의하여 안받침 되는 날 우리의 성업 완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2) 고교 이하의 반공교육 강화

문제의 소재와 성격을 말하는 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반공교육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의 하나는 반공교육의 담당교사를 공급해야 할 대학 자체가 승공교육은 고사하고 반공교육조차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성공적 실시는 고등학교 이하의 반공교육에 대하여 유능한 교사를 공급하게 될 것이니 승공교육의 성과가 이 반공교육의 비약적 전진을 가져오게 될 것이란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3) 공무원 및 각종 단체 교육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개선

지금 우리나라에는 각급 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해서 경찰전문학교, 교도관학교, 정보학교 등 많은 공무원 교육기관이 있으며 또 국민운동중앙훈련원, 농협대학, 한국전력, 대한석공 등 대 기업체의 부설 교육기관 그리고 그 밖에 여러가지 단체와 조직의 훈련기관이 있어서 대개는 한 두시간씩의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들이 해 온 반공교육이란 것은 거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못하여 총 시간수에 대한 비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내용 또한 단순한 북괴의 실정 폭로로 시종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에 대비하는 승공교육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교육기관의 반공교육은 질과 량의 양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과업 역시 대학 수준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보될 대학 강의요원의 양성으로써 그 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4) 대 북괴 사상전의 선제 공세

서론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사상적 도전·평화통일·남북총선거의 제의를 비롯하여 교수·학생·문화인·언론인·예술인·체육인·경제인·물자·서신 등의 남북교류 제의를 포함하는 저들의 각종 사상적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언제나 수세에 몰려왔고 문제회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생각컨대 일부 대학생들과 지식층이 우리 정부의 통일에 대한 성의를 의심하게 된 원인도 아마 이런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러나 대학수준의 승공교육이 성공적으로 준비·실시되게 되면 저들의 도전에 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언제든지 이에 접응 대결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선제공세를 취할 수도 있게 됨으로써 사상 투쟁에 있어서의 피아의 위치를 극적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재일 거류민단의 강화

승공교육의 성공적 준비 및 실시는 재일 거류민단의 조총연계에 대한 투쟁·공작 및 설득 역량을 한 차원 높이 강화함으로써 저들의 활동을 압축·봉쇄하는 데에도 강력한 지원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6) 미전향 간첩 및 사상범에 대한 선도

지금 전국의 교도소에는 상당수의 미전향 공산간첩과 사상범이 있으며 대전교도소만도 약 6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사상선도책은 한마디로 극히 소극적이어서 일요일의 예배, 산발적인 강사 초빙, 반공간행물의 열독 등 방법을 취하고는 있으나 그 내용·설득력이 심히 미약한 실정에 있다.

뿐만 아니라 전향자에 대한 사후교육이 없고 형기 만료자에 대한 감시도 불철저하여 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 출소자의 반수 이상에 대해서는 소재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선도책의 개선은 국가보안의 견지에서도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이 문제도 승공교육의 성공적 준비 및 실시를 기다려서 관계 공무원들의 승공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전향한 기결수에 대해서도 적절한 은전을 베풀어 주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선도와 나아가서는 통일에의 준비의 일환으로서도 연구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7) 통일후 재교육에 대한 준비

대학 수준에 있어서의 승공교육의 성공적 준비 및 실시는 통일전 단계와 통일단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통일후 단계에 대해서 까지도 직접 관계되고 있다.

즉 승공통일이 실현되면 이제까지 북한에서 공산주의교육을 받아온 많은 인구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절실한 문제에

부디치게 될것이므로 오늘의 승공교육에 대한 준비와 실시는 그날의 재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준비 구실도 동시에 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본 위원이 미전향자들에 대해서 시험한 방법 즉 공산주의의 사상과 이론을 공산주의 문헌에 의거해서 비판·대치하는 이 방법은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자들에 대한 재 교육에 있어서 더 없는 위력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생각 한다.

(8) 자유세계의 승공 역량 증진에의 기여

대학 수준의 승공교육을 위한 준비와 실시가 만일 우리의 뜻과 같이 성공할 수 만 있다면 그 결과의 효과와 기여는 비단 우리나라 국내 문제에만 한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오늘날 무력을 앞세워 약소국가를 유린하는 소련은 해방자로서 자처하는 반면에 종전 후 약소국가에 대하여 수백억불을 원조한 미국은 제국주의의 누명을 아직도 다벗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

고 보면 이론의 무력 또는 이론·사상의 힘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며 선진부분의 자유국가들이 이미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오늘날에도 자본주의에 대한 공산주의의 고발 앞에 자유세계의 적지 않은 지식분자들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상실에 빠지고 있는 것도 이 이론의 부족에 그 큰 원인이 있으며 소련을 비롯한 오늘의 많은 공산주의국가들이 「리베르만>방식의 이름으로 우리를 본뜨고 배워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유세계의 일부 지식층 특히 경제개발을 서두르는 후진사회의 일부 지식층에서는 아직도 반대로 공산주의제도에는 우리의 뒤진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줄 수 있는 무엇인가의 힘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릇된 기대를 걸므로써 공산주의를 <미래의 물결>인 줄로 착도하고 있는 것도 결국 따지고 보면 이론의 부족, 사상의 부재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더 낳은 대안에 의해서 공산주의를 대치하는 일이 우리의 뜻한 바와 같이 성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비단 우리의 승공통일을 위해서 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의 자유세계 전체를 위해서도 그 승공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때야 말로 설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도록 잊혀져 온 자유<센터>의 설립 취지를 되새겨 봄직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